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한 봉사 활동,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아이가 지역 복지기관에서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가요?

취재 최은정 리포터 lagom@naeil.com
도움말 소순택 교사(경기 평내고등학교)
자료 <2026 학생부 기재 요령(중학교·고등학교)>

More tip

봉사 활동 실적 인정 여부 확인 필수

VMS 또는 1365에 등록된
기관이더라도 영리 목적 기관이거나
해당 활동이 교육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봉사 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봉사 활동 인정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인데, 평일에는 수업 시간까지
합쳐 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5교시 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 봉사
활동을 하면 최대 3시간만 인정되는
식이죠. 수업이 없는 휴일이나
공휴일은 최대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개인 봉사 활동을 할 땐 1일
인정 가능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

학교장 승인 시 학생부 기재 가능 대입에는 미반영

봉사 활동 실적은 학생부에 ‘학교’와 ‘개인’으로 나누어 기재됩니다. 즉, 학생 개인이 학교 밖에서 실시한 봉사 활동도 원칙적으로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개인 봉사 활동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 학교장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봉사 활동을 할 땐, 사전에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학생부 기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기관 담당자가 실적을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직접 학생부 연계 전송을 해야 합니다.

경기 평내고 소순택 교사는 “학생부와와의 연계 절차는 해당 학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학교장 승인 절차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개인 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합니다.

이때 절차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된 개인 봉사 활동 실적은 진학 자료로 활용되지는 못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진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4학년 대입부터 개인 봉사 활동 실적은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